



양현종



김주찬

한숨 돌린 기아 ‘가을’까지 천천히 가자

양현종·에반 부상 크지 않아 안도...3주만의 합류 김주찬 출격 대기

부상 위기에서 한숨 돌린 ‘호랑이 군단’이 긴 호흡으로 막판 스퍼트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에게는 악몽의 한 주였다. 마무리 윤석민의 SK전 끝내기 홈런으로 시작된 패배가 수원을 거쳐 광주까지 이어졌다. 설상가상 부상 악재가 겹쳤다. 에이스 양현종이 28일 kt와의 원정경기에서 오정복의 타구에 왼 손목 위쪽을 맞으면서 경기 도중 마운드를 내려왔다. 29일에는 불펜에서 활약하던 에반이 오른쪽 팔 근육통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팀 타율 꼴찌의 5위 싸움을 이끌었던 마운드가 흔들리면서 고민에 빠졌던 한 주였다. 불행 중 다행으로 부상 영향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다.

양현종은 30일 공을 다시 집어들었다. 공에 맞은 부위가 부어있던 전날과 달리 상태가 많이 좋아지면서 가볍게 캐치볼을 소화했다. 가벼운 캐치볼이었지만 컨디션은 최상이었다. 양현종은 외야 펜스에 공이 박힐 정도의 좋은 구위를 선보이며 벤

치의 시름을 덜어주었다. 에반의 상태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에반은 지난 28일 SK전 등판 이후 팔꿈치 굴곡근 쪽에 통증을 호소했다. 29일 훈련 상황까지 지켜본 코칭 스태프는 휴식을 통해 완벽한 싸움을 하자는 판단을 내리면서 에반의 엔트리 말소를 최종 결정했다. 큰 부상은 아닌 만큼 복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9월1일자로 엔트리가 확대되면 5명을 추가로 등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물량 공세로 불펜을 운영해 나갈 수도 있다.

부상 악재에 반가운 부상 복귀 소식도 없다.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난 7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외야수 김주찬이 30일 다시 챔피언스필드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2일 일본에서 재활 치료를 끝내고 귀국한 뒤 2군에서 기본 훈련을 소화했던 김주찬은 이날 1군 선수단에 합류해 컨디션을 점검받았다. 그라운드를 떠난 지 3주

가 넘었지만 김주찬표 매서운 스윙은 여전히 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부상병들의 상태. 그러나 김기태 감독은 서두르지 않고 100%의 컨디션으로 전력을 꾸러가겠다는 방침이다.

“양현종이 캐치볼도 하고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로테이션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김기태 감독은 “김주찬의 경우 오늘까지 상황을 지켜볼 생각이다. 본인은 오늘도 당장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고맙기는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트레이닝 파트의 의견이 다르니까 무리를 시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김 감독은 눈 앞에 김주찬을 보고도 시즌 막바지까지 전개될 5강 싸움을 위해 ‘기다림’을 선택했다. 김주찬은 31일 휴식일을 보낸 뒤 1일 한화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복귀전을 치를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0타석 무안타 6삼진 황대인 “어렵다, 잠이 안 온다”

덕아웃 T 특독

▲우리 선수들 보고도 싶고 = 주말 넥센과의 경기 열린 챔피언스필드에 ‘미니 캠프’가 열렸다. 엔트리 확대를 앞두고 경기가 없던 2군 선수단이 대거 챔피언스필드로 이동해 합동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이적생 전현태를 비롯한 김주형, 최병연, 이인형, 박진두 등 내·외야수와 포수 이성우·차일목, 투수 임기준, 정용운 등 10여 명의 선수들이 훈련을 하면서 어릴 시간을 가졌다. 김 감독은 이에 대해 “우리 선수들 보고도 싶고, 2군 경기도 없어서 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계현 수석 코치는 “캠프 분위기가 좋고”며 그라운드 가득 자리를 한 선수들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 = 오랜

만의 1군 무대가 어색한 좌완 정용운이었다. 정용운은 30일 1군 훈련에 참여하면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다. 2009년 우승 멤버이기도 했던 정용운은 부상과 군복무로 오랜 시간 그라운드를 떠나있었다. 올 시즌 초반에도 재활의 시간을 보냈던 정용운은 모처럼 찾은 1군 무대가 어색할 수밖에 없었다. 어쩔 줄 모른 채 덕아웃에 망부석이 되어있던 정용운을 본 베테랑 차일목과 이성우는 “어색하게 있지 말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라며 웃었다.

▲안 아플 수가 있겠나 = 넥센 열광열 감동에게는 보배 같은 4번 타자 박병호다. 박병호는 30일 경기전까지 0.345의 타율로 46홈런 127타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4번 타자로서 만점활약을 해주고 있다. 여기에 팀에서 가장 많은 116경기에서 나와 공·수를 모두 소화하고 있다. 열광

열 감동은 “시즌을 보내면서 안 아플 수가 있겠다. 그런데도 4번 타자의 책임감으로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 쉬라고 해도 본인이 수비까지 다하겠다고 한다. 감독 입장에서는 고맙다”고 언급했다.

▲잠이 안 와요 = 황대인의 잠 못 드는 밤이다. 황대인은 자신감 넘치는 스윙과 파워로 눈길을 끈 고졸 루키다. 프로 데뷔 홈런도 터트렸고, 대타로 나와 결정적인 적시타로 날리며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다. 올 시즌 25타석에 나온 황대인은 8개의 안타를 때려내며 0.320의 타율을 기록했지만 볼넷은 하나 없이 11개의 삼진만 남겼다. 최근 3경기에서도 10타석에 나와 안타 하나 없이 6개의 삼진만 적렀다. 황대인은 “어렵다. 잠이 안 온다”며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방망이가 침묵했다. 강정호는 30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 경기에서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이날 콜로라도가 원수 투수 크리스 라신을 선발로 내세웠지만 강정호는 주전 유격수 글러브를 썼다. 강정호는 4번 타자 아라미스 라미레스가 3점 홈런을 친 직후인 1회말 1사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잘 맞은 타구들은 번번이 야수 정면으로 향했다. 4회말에는 첫 타자로 나와 유격수 직선

타로 돌아섰고, 6회말 1사에서는 빠른 땅볼 타구가 역시 유격수 정면으로 향했다. 8회말 1사 네 번째 타석에서는 평범한 유격수 땅볼로 고개를 숙였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91에서 0.288(365타수 105안타)로 떨어졌다. 강정호는 6회초 수비에서 보기 드문 실책을 저지르기도 했다. 1사 1루에서 콜로라도 D.J. 르메휴의 유격수 땅볼이 나오면서 병살타로 연결할 수 있었지만 강정호가 잡아 던진 공은 2루로 슬라이딩하던 1루 주자의 몸을 직접 맞히고 말았다. 2루수 빌 위커를 함참 비켜난 이 승구로 강정호는 실책을 기록했다. 팀은 4-3으로 승리, 4연승을 달렸다.

/연합뉴스

STOP

강정호 4타수 무안타

GO

추신수 5경기 연속 안타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3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 1삼진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48(427타수 106안타)을 유지했다. 4월 10일 기록한 올 시즌 최고 타율(0.250) 경신은 또 다시 다음으로 미뤘다. 추신수는 첫 타석인 1회말 무사 3루에서 1루수 땅볼로 잡혔다. 3회말에는 무사 1루에서 상대 중견수를 향하는 적시 2루타를 때려 선취점을 냈다. 추신수의 시즌 25호 2루타다. 이후 추신수

는 애드리안 벨트레의 좌월 2점 홈런 때 홈을 밟아 득점에도 성공했다. 텍사스는 3-0으로 앞서나갔다. 5회초 텍사스는 볼티모어에 홈런 1개를 포함한 안타 4개와 희생플라이를 내주고 3-3 동점을 허용했다. 추신수는 5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삼진으로 물러났다. 4-3으로 앞선 7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마이클 기븐스의 조구인 시속 약 154km 직구를 공략해왔지만 유격수 땅볼로 잡혔다. 텍사스는 9회초 2사 1-3루 역전 위기를 맞았지만 선 톨레슨이 매니 마차토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4-3으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연합뉴스